“그림은 제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송진현 작가

송진현 (지체장애 구필화가), ‘동행’

사랑의열매

2023
04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와 소중한 진심을 전하세요

중앙회	02-6262-3000	서울지회	02-3144-0101
부산지회	051-790-1400	대구지회	053-667-0530
인천지회	032-456-3333	광주지회	062-222-3566
대전지회	042-347-5171	울산지회	052-270-9000
경기지회	031-220-7900	경기북부	031-906-4028
강원지회	033-244-1662	충북지회	043-238-9100
충남지회	041-635-0340	전북지회	063-282-0606
전남지회	061-902-6800	경북지회	054-650-2600
경남지회	055-270-6700	제주지회	064-755-9810
세종지회	044-863-5400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ARS
060-700-1212
(한 통화에 3,000원)

문자
#9004
(한 통화에 2,000원)

QR 기부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기념일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4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착한가게를 소개해주세요

착한가게

지난해 12월 사랑의열매 기부 프로그램인 '착한가게' 현판을 단 곳이 4만 곳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좀 더 쉽게 착한가게를 만날 수 있게 되었죠.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착한가게를 〈사랑의열매〉를 통해 널리 알려주세요. 음식점은 물론 헤어 숍, 옷 가게, 서점, 학원 등 사랑의열매 착한가게에 가입한 곳이라면 어디든 대환영입니다.

〈사랑의열매〉에서 소개하는 착한가게 방문 후기를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이번 달 매슐랭에 실린 부산 동남아 음식점의 절대 강자 '동남아삘'을 방문한 후 인증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12~16쪽 매슐랭 기사 참고)

참여 방법

1. 착한가게 현판과 가게 내부, 또는 상품(음식) 사진을 찍는다.
2. 사진과 함께 상호명을 적어 매달 20일까지 사랑의열매에 이메일을 보낸다.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

착한가게를 소개해준 분 중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04 **긴급 구호**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특별 모금

06 **표지 이야기**
대구·경북 유일의
세계구족화가협회 회원 된 송진현 작가

08 **나눔 여행**
댕댕이와 함께 여행하'개'

12 **매슐랭**
부산 동남아 음식점의 절대 강자
동남아삘

16 **그린 열매**
나에게 맞는 친환경
빨대를 찾아서

18 **모두의 나눔**
조금 느리고 서툴러도
참 괜찮은 일상

24 **희망으로 채우는 세상**
발달장애인 문화활동가
양성을 통한 지역 맞춤형
직무 개발 사업 '연천이음 메이트'

28 **희망 플러스**
화가·배우·에세이 작가 정은혜

30 **내 인생의 한마디**
(유)유복ENG 신동식 대표·정인숙 부부와
아들 유복전기 신상우 대표

34 **소중한 진심**
구두 수선공 김주술 씨의 빛나는 나눔 이야기

36 **나눔인**
❶ 울산 사랑의열매 제12대 전영도 신임 회장
❷ 충북 사랑의열매 제11대 이민성 신임 회장

38 **착한기업**
전남 지역 공기업 1호 나눔명문기업
여수광양항만공사(YPGA)

42 **다른 그림 찾기**

43 **전국 열매 이야기**
서울·인천·경기·경기북부·강원·세종

56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58 **전국 지회 뉴스**

68 **나눔 만화**

이달의 표지

송진현, '동행'
캔버스에 유채
40.9×53.0cm

VOL. 192
2023. 04

사랑의열매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발행인 김병준
발행일 2023년 4월 / 통권 192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MIX
From responsible sources
FSC® C005413
www.fsc.org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로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특별 모금

폐허 속에서도 희망이 피어나길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서북부 일대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다. 사상자가 속출했고, 삶의 터전은 한순간 폐허로 변했다. 생존자들은 모든 게 무너져버린 암담한 현실을 마주한 채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글 이선희 **사진** 셔터스톡, 사랑의열매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

이번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은 21세기 최악의 재앙 중 하나로 기록됐다. 지난 3월 20일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AFAD)이 파악한 지진 피해 공식 사망자 수는 5만 96명, 부상자는 10만 명을 넘어섰다. 세계은행(WB)은 이번 지진으로 튀르키예의 직접 피해액이 342억 달러(약 45조 1,000억 원)라고 추정한다. 또한 전체 재건 비용은 직접 피해 규모의 2~3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어 예전 모습을 되찾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마음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신속하게 긴급 지원 및 특별 모금 전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이 발생하자 사랑의열매는 피해 복구 및 피난민을 위해 신속하게 지원을 결정했다. 2월 24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를 통해 100만 달러를 긴급 지원했다. 해당 지원금은 이재민 임시 보호소를 중심으로 식량 키트와 담요 및 텐트 등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그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지난 2월 8일부터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를 위해 특별 모금을 시작했다. 지진 피해가 심각해지자 지속적인 구호 활동과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월 28일로 종료 예정이던 특별 모금 기간을 3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하고, 모금 목표액을 150억 원으로 증액했다.

곳곳에서 소중한 마음이 모여

특별 모금이 시작되자 각계각층에서 온정의 손길이 모였다. SK그룹 12억 6,000만 원, KT 10억 원, S-oil 6억 4,000만 원, 롯데그룹 6억 3,000만 원을 비롯해 하나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CJ그룹, LS그룹 등이 성금을 전달했다. 또한 법인 기부 외에도 2월 24일에는 강원도가 구호금 10만 달러에 강원도청 직원들이 평소 자발적으로 적립해온 '강원행복나눔기금' 1,000만 원을 더해 나눔을 실천했다. 카카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10억 원, NCT 도영 1억 원, NCT 해찬 1억 원, SK네트웍스 최신원 前 회장 1억 원, 영생당한약방 임숙현 대표 1억 원, 배우 박재민 2,000만 원 등 연예계를 포함한 개인 기부 참여도 이어졌다. 이 외에 네이버 해피빈과 카카오 같이가치 등 온라인에서도 모금을 전개해 지진 피해 이재민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데 힘을 보탰다.

1

2

1 지난 2월 24일 진행한 기부금 전달식에서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과 김진태 강원도지사(오른쪽)

2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에게 작으나마 위로를 드리고 싶었다"며 기부금을 전달한 배우 박재민(왼쪽)과 전달식에 함께한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

“사랑의열매에 고마운 마음, 그림으로 전해요!”

송진현 작가는 오히려 고맙다고 인사했다. 도움받은 자신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면서 말이다. 글 강은진 사진 이승재

동행합시다

〈사랑의열매〉 4월호 표지에도 벚꽃이 만개했다. 기분 좋은 눈부심이다.

“표지를 의뢰받고, 처음엔 기존 작품 중에서 골라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4월과 사랑의열매, 그리고 저의 인연을 생각해보니 새로 작업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더라고요.”

송진현 작가는 사랑의열매와 인연이 깊다. (사)대구장애인미술협회 창립을 주도하며 현재 회장직을 맡고 있는 그는 사랑의열매로부터 협회 회원을 위한 승합차 지원부터 협회 화장실 개조 수리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았다고 했다. 인터뷰를 진행한 협회 사무실 앞에는 그의 말처럼 사랑의열매 로고가 그려진 승합차가 주차돼 있었다. 사무실에도 사랑의열매 스티커가 곳곳에 붙어 있었다.

“그래서 이번 표지 작업이 더 특별했어요.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고마움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다 싶었거든요. 제목은 ‘동행’입니다. 사랑의열매는 언제나 어려운 이웃들과 동행해주니까요.”

화사한 봄꽃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이는 필시 송진현 작가 본인일 터. 휠체어 뒤에 그려진 빨간색 열매 로고가 그의 마음을 잘 전해주는 듯했다.

세계가 인정한 구족화가

송진현 작가는 군 장교로 복무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됐다. 당시 그의 나이는 스물아홉 살에 불과했다. 그러나 절망도 잠시, 언젠가 장애인이 입이나 발가락으로 붓을 잡고 그림 그리는 것을 본 기억이 났다.

“초등학교 때 그림을 좋아해서 상도 타고 그랬는데, 교사였던 아버지 반대로 그냥 잊고 살았어요. 무엇보다 ‘장애인’으로만 불리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를 부르는 다른 호칭을 얻고 싶었죠.”

송진현 작가는 딱 10년만 해보자 결심했다. 몸이 불편하니, 학원이나 학교는 엄두도 못 내 독학은 필연이 됐다.

“‘장애인이 그렸는데 이 정도면 뭐’라는 말이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첫 공모전도 장애를 밝히지 않고 비장애인 공모전에 출품했어요. 그때 입상했는데, ‘이 정도면 됐구나’ 싶더라고요.(웃음)”

송진현 작가는 이후 어렵다고 정평이 난 세계구족화가협회 회원심사를 통과하여 협회의 지원으로 작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있다.

대구 · 경북 지역에서 그가 유일하다.

“이제 장애인 예술도 장애가 아닌 작품이 주목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작품을 작품 그대로, 작품만 봐주세요.”

인터뷰 말미에 송진현 작가는 자신의 마지막 바람을 이렇게 전했다. 봄바람을 타고 그의 마음이 모두에게 부디 잘 전해지길!

작가 주요 profile

- **1968** 대구 출생
- **1992** 대구대학교 사범대 화학과 졸업
- **2008** 세계구족화가협회 가입
- **2010**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희망 축제 장애인미술가상 최우수상
- **2016**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대상
- **현재** 대구장애인미술협회장

반려동물과 함께 당당히
떠나는 연둣빛 가득한
4월 여행지는 어디?

댕댕이와 함께 여행하개

한국관광공사가 1,500만 펫팸족을 위해 선정한 반려견 동반 여행지 56곳 중 4월과 가장 어울리는 여행지를 소개한다. 즐겁개! 신나개! 떠나보자.

글 강은진 **사진** 한국관광공사갤러리 라이브스튜디오

이제는 '혼저옵서개'
제주

해외는 고사하고 국내인 제주도도 반려동물과 함께라면 비행기 타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당당히 타도 좋다. '혼저옵서개' 여행 프로젝트 덕분이다.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는 관광객은 물론, 제주도민에게도 반려동물 동반 시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광지를 비롯해 식당·카페, 숙박 시설, 오름 등 자연경관과 동물 전용 시설 등을 조사하고 올해 1월 그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정보는 제주도 공식 관광 정보 포털 비짓제주 누리집(www.visitjeju.net) '혼저옵서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자책을 다운받을 수 있어 편리하며, 소형견·중형견·대형견으로 구분해 탑승 기준이나 입장 여부 등을 자세히 안내해준다. 제주의 푸른 바다를 즐기며 흑돼지 바비큐를 먹고, 멋진 카페에서 인증 사진을 찍는 일, 이제 당당하게 누려보자. 연말까지 월 1회씩 운영하는 제주도 반려동물 동반 전용 전세기 '댕댕이 제주 전세기'도 출시됐다고 하니 망설일 이유가 없다.

마음껏 뛰어노시개!

임실 오수의견관광지

반려견이 목줄과 입마개 없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곳, 임실 오수의견관광지다. 국내 최초로 반려견 전용 놀이터와 훈련장, 오수개연구소 등 반려견을 위한 시설을 갖췄다. 위험에 빠진 주인의 목숨을 구한 의견(義犬)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곳으로, '오수'는 개 오(獒)와 나무 수(樹)를 합한 글자다. 죽은 개를 묻은 자리에 지팡이를 꽂았는데, 그 자리에서 나무가 자랐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오수천을 따라 계절 꽃을 식재한 산책길은 언제 가도 꽃길이다. 놀이터가 워낙 넓어 도시 공원에서는 쉽지 않은, 원반이나 공을 던져 물고 오게 하는 훈련을 하기엔 이만한 곳이 없다.

오수의견관광지 전북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261
애견놀이터 전북 임실군 오수면 충효로 2096-16

메타세쿼이아 숲 산책

장태산자연휴양림

반려인에겐 이미 소문 자자한 대전 명소다. 반려견 동반에 인색한 휴양림 중 동반 출입이 가능한 몇 안 되는 곳이기 때문. 게다가 국내 유일의 울창한 메타세쿼이아 숲이 연출하는 이국적 경관이 그야말로 기막히다. 피톤치드 가득한 삼림욕은 덤이다. 사랑하는 반려견과 메타세쿼이아 숲을 산책하는 모습은 그림이 따로 없다.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잘 조성된 산책길은 물론, 미니 축구나 농구 경기 등을 즐길 수 있는 소규모 운동 공간과 스카이웨이, 전망대 등이 잘 갖춰져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대전시 서구 장안로 461 042-270-7883

우리 모두를 위해 지켜야할 펫티켓

반려인

- 반려동물 등록은 기본 중 기본이에요.
- 외출 시에는 목줄, 인식표, 입마개(맹견 또는 입질이 있는 강아지)를 착용해야 해요.
- 강아지 목줄·가슴줄은 2m 이내로 짧게 잡아야 해요.
- 배변 봉투를 챙겨 배설물을 꼭 수거해주세요.
-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강아지를 잘 통제해야 해요.
- 실내 입장할 때는 케이지를 지참하는 게 좋아요.

비반려인

- 견주의 동의를 먼저 구하고 강아지를 만져야 해요.
- 강아지에게 갑자기 다가가거나 큰 소리를 내는 등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 강아지 눈을 너무 빤히 쳐다보면 안 돼요. 공격 신호로 받아들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 강아지를 향해 불쾌하고 무례한 언행은 삼가주세요.

출처 제주관광공사 〈혼저옵서개〉

이번엔 계곡이다

진안 운일암반일암

기암절벽에 구름뿐이라 '운일암', 하루 중 반나절만 해를 볼 수 있다 하여 '반일암'이라 일컫는 진안 운일암반일암은 직접 보면 기암괴석들이 웅장하다. 그중에서도 '전북 천리길'로 지정된 운일암반일암 숲길(진안고원길 9구간)은 생태 탐방로와 기암괴석, 크고 작은 폭포와 소가 빚어낸 절경으로 유명하다. 또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반려견과 함께하는 우선 안심 걷기 길'인 '눈치보지마시개길'이기도 하다. 추천 코스는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국민여가캠핑장에서 시작해 무지개다리까지 약 0.8km의 생태 탐방로다. 걷기만 해도 절로 힐링이 된다.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전북 진안군 주천면 동상주천로 1996-13

부산 동남아 음식점의 절대 강자, 동남아삘

“맛있는 ‘삘’이 오시나요?”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장님, 의리 있는 직원에 충성도 높은 단골들까지! 완벽한 삼박자, 아니 사박자의 하모니가 돋보이는 맛집 동남아삘이다. 글 강은진 사진 이승재

남다른 면발, 소문 자자해

부산 중구에 위치한 동남아삘은 소문 자자한 신흥 맛집이다. 쌀국수나 팟타이, 나시고렝 등 부산에서 동남아 음식을 검색하면 언제나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 중 하나다. 포털 평점도 5점 만점에 4.76점이다. SNS 후기 역시 쏟아지는 수준. 유료 홍보 효과가 아니냐는 의심은 거두어도 좋다. 내용을 살펴보면 영수증 인증은 물론이거니와 가게 이전에도 불구하고 찾아왔다는 후기가 대부분이니 말이다. 그래서 동남아삘을 찾아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컸다. 내 입에 맞는 쌀국숫집 한 곳을 알고 있는 건 정말 든든한 일이니까.

“아직 성공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성공의 순간을 물으신다면 가게가 이전했는데도 일부러 찾아와주시는 손님들을 볼 때죠. 제가 다대포에서 작년에 중앙동으로 옮겼거든요. 그런데도 이쪽으로 찾아와주시고, 배달 주문도 해주시면서 외려 제게 고맙다고 하세요. 계속 영업해줘서 고맙다, 배달이 돼서 너무 좋다고요.”

동남아삘 도유미 대표는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냐며 활짝 웃었다. 본격적으로 맛의 비결을 물었다. 특히 면발이 궁금했다. 쌀국수야 이제 익숙해진 메뉴라지만, 밀가루 면을 주로 먹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쌀가루로 만든 면은 아직 낯선 게 사실이다. 그런데 유난히 동남아삘의 쌀국수에는 면발 칭찬이 많았다. 쫄깃함이 남다르다는 것.

우연히 시작한 외식업으로 꿈을 가지게 되었다는 도유미 대표

우리 쌀로 만든 생면을 사용하는 동남아삘은 쫄깃한 국수 면발로 소문이 자자하다.

"저는 우리 쌀로 만든 생면을 사용하고 있어요. 베트남 면은 찰기가 부족하고 쫀득쫀득한 식감이 아니거든요. 저는 무조건 현지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동남아 대표 메뉴로 승부

소문 자자한 동남아삘 쌀국수의 인기에는 육수도 한몫한다. 소고기, 닭발을 기본으로 각종 재료를 도유미 대표만의 조합으로 우려내는 육수는 "시~원하다"는 탄성이 절로 나온다. "소고기, 닭발에 각종 야채 등등…." 리듬을 타듯 육수 재료를 열거하던 도유미 대표는 "그 외는 비밀입니다"라고 말을 아끼며 부끄러운 듯 웃었다.

"쌀국수 국물이 고기 육수라 느끼할 수도 있어요. 여러 향신료 맛도 날 수 있고요. 그런데 저는… 왜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국물 한 숟갈 딱 뜨면 '아, 시원하다' 하면서 담백한 맛을 즐기는 거요. 저희 집 쌀국수도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육수를 연구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에요.

도유미 대표는 한 번씩 생각나는 음식 말고,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었다고 한다. 자신 역시 직접 만든 쌀국수를 매일 먹고 있다면서 말이다. 동남아삘의 모든 메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만든다고. 그나저나 쌀국수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한데, 왜 상호는 '동남아삘'일까?

"메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트남부터 인도네시아·태국 등 동남아 각국의 대표 음식을 선보이고 있어요. 전문점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동남아 음식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상호도 제가 지었어요. 동남아 음식점이란 뜻에서요."

동남아 '필(feel)' 가득한 음식점이라니, 이보다 멋진 상호가 있을까. 또 동남아삘이라는 이름처럼 베트남 소고기쌀국수를 대표로 인도네시아 볶음밥 나시고렝, 태국 볶음쌀국수 왕새우 팟타이와 태국식 돼지고기덮밥 팟카파오무삽 등이 고루 인기가 높다.

맛있는 음식과 나눔이라는 꿈

누구보다 열정이 넘쳐 보이는 도유미 대표는 어떤 질문을 해도 "꿈이 없었다"고 했다. 물론 과거형이긴 하지만 말이다.

"서른이 될 때까지 정말이지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웃음) 식당을 하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고요. 그러다 사정이 생겨 운영을 못 하게 된 지인의 식당을 덜컥 맡았는데, 이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시행착오도 많았고, 처음부터 잘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도유미 대표는 우연히 시작하게 된 외식업에 비로소 자신이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찾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치킨집, 주꾸미집 등 메뉴를 바꿔 여러 번 음식점을 창업하며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맘고생도 심했다. 그럼에도 외식업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 궁리만 했을 뿐이다. 이런 걸 운명이라고 하나 보다.

"꿈이 없었다고 말했지만, 늘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소망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하니… 식당에서 쌀국수 나눔 이벤트 같은 걸 해보면 어떻겠냐고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착한가게도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도유미 대표는 다대포 시절부터 한 달에 한 번 쌀국수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당일 수익금을 기부하는 나눔을 시작했다. 중앙동으로 이전한 지금은 매주 수요일에 쌀국수 5,000원 나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막상 이벤트를 진행했지만, 수익금을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더라고요.(웃음) 그래서 가장 공신력 있는 사랑의열매에 제가 연락을 했어요."

착한가게 부산 906호인 동남아삘을 운영하는 도유미 대표는 이제 꿈이 있다. 아니 많다.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고, 동남아삘 1호, 2호 직영점도 내고 싶다. 그리고 나눔도 계속 이어가고 싶다. 이제는 꿈 부자로 거듭난 도유미 대표의 다음 소식을 기다려보자.

동남아삘 식당 전경. 고수는 셀프 바에 배치해 취향껏, 양껏 즐길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친환경 빨대를 찾아서

시중에서 플라스틱 빨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빨대를 아예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종이 빨대가 대체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금방 눅눅해지는 터라 '불호'를 외치는 사람이 더 많다. 최근에는 친환경 빨대를 찾는 이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소재의 빨대를 만날 수 있다. 이 중 나에게 맞는 빨대는 무엇일까? 글 이선희 사진 서범세

스테인리스 빨대

내구성이 좋고 가볍고 튼튼하다. 관리만 잘한다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입 후 사용하기 전 연마제 등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고, 뜨거운 음료를 마실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단점으로 꼽힌다.

L 기자 빨대 안까지 연마제를 제대로 제거했을지 걱정. 음료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까.
K 기자 차가운 음료를 마실 때 스테인리스 빨대의 진가가 발휘된다. Good
B 기자 세척의 어려움, 날카로운 금속의 감촉. 나와는 안 맞는 걸로….

트라이탄 빨대

트라이탄은 환경호르몬 의심 물질인 비스페놀-A(BPA)가 검출되지 않아 아기의 젖병 소재로 많이 사용한다. 내구성이 뛰어나 잘 깨지지 않고, 내열성도 우수해 뜨거운 음료를 마실 때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투명해 세척 시 확인하기 쉽다.

L 기자 사용했을 때 플라스틱 빨대와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 가장 익숙하다. Good
K 기자 사용감은 무난. 오히려 너무 플라스틱 빨대 같아서 손이 잘 가지 않았다.
B 기자 다회용이라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으로 가장 적합하다. Good

풀 빨대

속이 텅 빈 베트남 풀(레피로니아 아티큘라타(lepironia articulata)로 제작했다. 재배한 풀을 절단, 세척, 건조, 살균 및 멸균 과정을 거쳐 빨대로 만든다. 인체에 무해하지만, 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

L 기자 대나무보다 가볍지만, 대나무보다 약하다.
K 기자 풀 냄새가 전혀 나지 않으며, 사용감도 정말 좋다. Good
B 기자 일회용이라 한 번 사용하고 버려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죄책감이 덜하다. '풀'이니까. Good

대나무 빨대

대나무는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 친환경 소재로 주목받는다. 대나무 빨대는 대나무를 채취, 절단해 살균, 세척, 건조 과정을 거쳐 만든다. 다회용 제품도 있지만, 천연 소재 특성상 일회용을 권장하는 경우도 있어 구매 시 확인해야 한다.

L 기자 얼음물에 오래 담가도 변형이 없어서 놀랐다. 올여름 아이스 음료를 마실 때 자주 사용할 듯. Good
K 기자 단단한 느낌은 좋지만, 한 번 사용하면 버려야 해서 너무 아깝다.
B 기자 갈라진 제품이 유독 많아서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버린 게 더 많아 아쉽다.

쌀 빨대

쌀가루와 타피오카 전분을 섞어 만든 빨대로, 식품으로 만들었기에 섭취도 가능하다. 일회용이지만 완전히 생분해되며, 일반 쓰레기는 물론 음식 쓰레기로도 배출이 가능하다. 단단한 질감이지만, 음료에 오래 담가두면 빨대가 붙거나 깨져서 사용 가능 시간이 비교적 짧다.

L 기자 한번 체험해보는 걸로 만족. 어른보다 아이들이 신기해하고 재밌어한다.
K 기자 빨대가 붙어난 모습, 시각적으로 별로다.
B 기자 자꾸 입술에 달라붙어 은근히 거슬린다.

실리콘 빨대

실리콘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열탕 소독이 가능하고 부드러워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세척하기 편하도록 실리콘 빨대를 여닫을 수 있는 제품도 출시되어 실용성을 높였다.

L 기자 실리콘 특유의 냄새 때문에 적응하는 데 꽤 오래 걸렸다. 하지만 휴대성 하나만큼은 최고!
K 기자 개방형이라 빨대 안까지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건 장점이지만, 아귀가 꼭 맞게 닫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귀찮다.
B 기자 만질 때 느껴지는 실리콘 특유의 끈적함 때문에 사용하기 꺼려졌다.

기자 3인의 생생 후기

유리 빨대

냄새나 변색이 없어 음료 자체의 향과 맛을 변하게 하지 않는다. 투명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내열 강화유리를 사용해 뜨거운 물로 소독할 수도 있다.

L 기자 뽀득뽀득 닦을 수 있어서 만족하지만, 휴대용으로는 비추천. 작은 흠집에도 깨진 게 아닌가 자꾸 확인하게 된다.
K 기자 유리컵은 익숙한데, 유리 빨대는 참 낯설다.
B 기자 이와 부딪칠까 봐 왠지 조심조심 사용하게 된다.

조금 느리고 서툴러도 참 괜찮은 일상

비장애인에겐 당연하고 사소한 일상이 장애인에겐 말처럼 쉽지 않다. 사랑의열매는 장애인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이에 전국 나눔 협력 기관과 함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글 이선희 **사진** 각 나눔 기관 **일러스트** 미세스손그림

온택트 인프라 형성 및 정신 건강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
'온택트투게더'

1

2

3

1 정신장애인이 직접 콘텐츠 제작에 참여해 그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2, 3 정보 제한으로 재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정신재활시설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모습.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도 충분히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온택트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이다. 우리 사회는 일찌감치 이런 온택트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디지털 소외 계층에는 아직도 먼 세상 이야기다. 디지털 환경을 구축했다고 해서 그들이 단번에 이를 활용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동광임파워먼트센터는 사랑의열매 지원을 받아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누구나 온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온택트투게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은 크게 영상 관련 기기 구입 등을 지원하는 온택트 인프라 형성과 온택트 프로그램 운영으로 나뉜다. 특히 온택트 프로그램에서는 정신 건강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 교육도 진행한다. 지난해부터는 영상 채널을 운영해 참여자들이 본격적인 크리에이터 활동에 나서며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MINI INTERVIEW

동광임파워먼트센터 서진영 선임

"저희는 이번 사업을 운영하면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온택트투게더 경험은 '새로운 온라인 경험 → 흥미 →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한 능력 발휘 및 성장 → 세상으로 나갈 희망을 경험'하는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가 세상으로 발을 내딛기 위한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을 지켜보며 개인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발달장애인 토요 난타 프로그램
'북치기 박치기'

참여자들은 지금까지 결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적극적이다.

발달장애인은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중과 달리 주말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다. 하지만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집에만 있기 마련이다. 그 결과 장애인은 더 예민해지고 도전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가족들 역시 주말에 취미 활동은 고사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도 어렵다. 이에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칠곡군지부에서는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올해 2월부터 토요 난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매주 토요일 진행하며,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이 참여하는 게 특징이다. 난타를 연주하면서 장애인은 자기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하며 즐거운 여가 시간을 보내고, 비장애인에겐 매주 발달장애인과 만남으로써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신나게 난타를 연주하는 참여자들

"장애인 참여자와 함께 연주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장애를 바라보는 비장애인 참여자의 시선도 바뀌지 않을까요."

–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칠곡군지부 이애경 사무국장

MINI INTERVIEW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칠곡군지부 이애경 사무국장

Q 프로그램에 비장애인도 포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난타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힘들게 대화를 이어가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고요.

Q 이 사업의 강점을 꼽는다면요? 장애인이 여가를 의미 있게 사용하며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연습한 프로그램을 무대에서 발표하며 자존감과 자긍심이 향상시킬 수도 있고요.

Q 사랑의열매의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지원 덕분에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었고,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시설 퇴소 정신장애인의 안정적 자립 생활 정착 서비스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Bravo, My New Life)'

퇴소 준비 훈련 중 정리 정돈을 배우는 모습

시설에 입소한 정신장애인은 퇴소 후 자립 생활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체계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엔 시설 입·퇴소를 반복하거나, 다른 시설로 옮기는 일이 반복된다. 이에 정신재활시설 생명의터에서는 사랑의열매의 지원으로 지난해 7월부터 정신장애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참여자의 퇴소 전 단계부터 정신 건강 핵심 기관을 중심으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 자립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 시설 퇴소 전 일정 기간 자립 생활을 경험해보도록 체험 공간인 중간집(half-way house)을 마련했다. 그곳에서 참여자는 홀로 생활하며 맞닥뜨릴 수 있는 어려움과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부족한 자립 역량을 강화해 실제 지역사회에서 겪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참여자들이 우리 동네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 정신재활시설 생명의터 김형석 원장

1 지역 자립 생활 동료 지원가 모임 **2** 자립 체험 중 혼자 장보기에 나선 참여자 **3**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자립 생활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사진은 참여자 스스로 집 안 청소하는 방법을 배우는 모습.

MINI INTERVIEW

정신재활시설 생명의터 김형석 원장

Q 사업 기획 시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참여자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기관 및 주변 기관의 원활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Q 중간집 자립 체험 후 참여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혼자 사는 것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해볼 만하다", "밤에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들었다", "약 먹는 것을 헷갈리지 않도록 요일별로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Q 사랑의열매 지원은 어떤 의미인지요?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과 같습니다. 이 디딤돌이 있기에 꼭 가야 하는 길을 멈춤 없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발달장애인 문화활동가 양성을 통한 지역 맞춤형 직무 개발 사업 '연천이음 메이트'

"나는 세계 최초 발달장애인 문화활동가입니다!"

'연천이음 메이트'가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장애인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직업 선택의 폭까지 넓혔기 때문이다. 글 강은진 사진 이승재

전국 최초 넘어 세계 최초!

발달장애인 문화활동가를 만나기 위해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에 위치한 재인폭포로 향했다. 이곳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질 명소이자 전국 최초를 넘어 유네스코 지정 명소 중 세계 최초로 발달장애인 문화활동가들이 근무하는 곳이기도 하다.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 주변을 둘러볼 겸 재인폭포 쪽으로 가니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다가와 "제가 설명해드릴까요?" 하고 물었다. 얼결에 대답을 했더니 "이곳 한탄강은 크게 50만 년 전에서 12만 년 전 분출된 용암이 식으면서 생긴 지형인데요…" 하며 바로 설명을 시작했다. 처음엔 그가 발달장애인 문화활동가인 줄 몰랐다. 그러다 어려운 용어 사이사이 약간 어눌한 발음이 들렸고, 그제야 유니폼 소매에 부착된 KSD나눔재단, 경기 사랑의열매, 연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마크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연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천이음 메이트' 사업을 통해 교육을 마치고 재인폭포에 채용된 발달장애인 문화해설사 3인 중 한 명인 한에스더 씨였다. 그의 열정적인 설명에 관광객이 삼삼오오 모였고, 안내가 끝나자 사람들은 "우아!", "멋지다", "잘한다" 등 저마다 찬사를 보내며 박수를 쳤다. 한에스더 씨는 조금 부끄러워 보였지만, 기분은 아주 좋은 것 같았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 왜 이 사업이 호평받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경험이었다.

(왼쪽부터) 재인폭포에 채용된 '연천이음 메이트' 교육생 김범주, 차상미, 한에스더 씨

사업 2년 차, 현장에서 큰 호평

2023 연천군 장애인일자리 사업에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폭포에 해설사로 채용된 발달장애인 3인은 연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발달장애인 문화활동가 양성을 통한 지역 맞춤형 직무 개발 사업 '연천이음 메이트' 교육생이다. 지난 2022년 사랑의열매와 KSD나눔재단이 함께 하는 마음이음 공모에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재인폭포에서 문화해설사로 근무하고 있는

관광객에게 재인폭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문화해설사 한에스더 씨

한에스더 씨처럼 관광지에서 해설사나 가이드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문화활동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2년 차에 불과하지만 벌써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2021년 연천군 장애인일자리 사업에는 모두 44명의 장애인이 참여해 관내 행정복지센터 및 유관 기관 등에 1~2명씩 배치됐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진 업무는 방역 관리나 안내 데스크에 앉아 있기 등 방문객 응대나 환경 정리, 청소 등 단순 직무에 불과했다. 취업 취약 계층인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의 목적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누군가는 의문을 제기할지 모른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얻는 기쁨이나 자아 성취, 자기 계발 등을 아느냐고 말이다. 소득이 발생하는 일이면 족하지 않느냐고 말이다. 하지만 현장 관계자들의 말은 달랐다. 직업을 통한 자기 성취 욕구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높다고 입을 모았다. 재인폭포에서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문화활동가 중 한 명의 이전 직장 퇴사 이유는 "반복되는 업무가 지루하고 재미없어서"였다. 그가 맡은 업무는 박스 포장이었다.

양질의 일자리 발굴 의미 커

연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연천군의 관광자원에 주목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산업 시설이 많지 않은 연천군은 일자리 자체가 적을

교육생은 채용 후에도 직무 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꾸준히 교육을 받는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사 유적지, 호로고루, 주상절리 등 관광자원을 다수 보유한 데다 2020년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선정되면서 문화 자원 개발에 탄력을 받고 있었다. 연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연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발달장애인 문화활동가를 양성한다면 발달장애인의 새로운 직무 개발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넘어 연천의 대표적 문화 자원으로까지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사업 시행 첫해인 2021년, 문화활동가로서 직업에 관심이 많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성인 발달장애인 8명을 선발해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다. 발달장애인 맞춤형 강의 교안을 특별 제작하고, 지질해설사와 문화해설사 등을 강사로 초빙해 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등 교육 커리큘럼을 이론과 실습으로 알차게 구성했다. 교육생은 4개월여의 기간 동안 30회에 육박하는 교육을 받았다. 연천이음 메이트의 성공은 해당 사업을 벤치마킹하려는 다른 지자체 및 유관 기관들의 큰 관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양질의 일자리 발굴은 물론, 하나의 훌륭한 문화 자원으로서 가능성을 본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좋아하는 건 문화해설사로 일하게 된 발달장애인이다. 비로소 '지루하고 재미없는 업무'에서 벗어나 멋진 유니폼을 입고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과 설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지금, 열정적인 해설이 일품인 발달장애인 문화해설사를 만나러 연천으로 가보자!

연천군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이론과 실습 모두 발달장애인 맞춤형 강의 교안을 특별 제작했다.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에도 크게 한몫해"

연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김은지 사회복지사

발달장애인 문화활동가의 장점은 무엇인가?

누구보다 밝고 성실하다는 점이다. 문화활동가가 만나는 건 언제나 관광객이다. 여행 왔는데, 어두운 표정의 가이드가 안내하면 어떨까? 발달장애인 문화활동가는 인사도 잘하고 언제나 밝다. 이 점은 방문객 모두가 인정한다. 그리고 정말 성실하다. 근무지가 시내와 떨어진 관광지라 교통편이 그리 좋지 않지만,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지각하지 않고 정시 출근을 하고 있다.

현장 반응이 궁금하다.

해설 자체가 색다르다는 말을 많이 한다. 비장애인과는 다른 시각이라 신선하다면서 말이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 좋다는 반응도 있다. 평등한 입장에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해설이랄까, 특히 인식 개선의 계기가 되는 것 같다. 발달장애인 친구들의 설명을 듣다 보면,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어떤 감동을 느끼게 된다. 여행에 이야기가 생긴다고 할까. 이건 정말 직접 경험해봐야 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다.

선발 당시엔 "안녕하세요.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하는 자기소개도 못 했다. 그래서 인사하는 법부터 시작했다. 담당자인 나조차도 기획하면서 '이게 될까?' 걱정이 많았다. 복지사업 대부분이 취약 계층이라고 하면 장애인과 노인, 이런 식으로 여겨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라고만 인식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과 관광객분들도 장애인을 자주 접하지 못해 낯설어할 뿐, 편견 없이 대해주는 걸 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렇게 마주하는 기회가 늘어날수록 인식도 많이 개선되겠다 싶었다.

사랑의열매와 KSD나눔재단의 마음이음 사업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나?

아주 큰 도움이 됐다. 특히 이 사업은 홍보가 중요한데, 사랑의열매에서 정말 홍보를 많이 해주었다. SNS 활성화에도 발 벗고 나서주었다. 또 모든 회의에 참석해 사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다 도와주고,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조율에도 앞장서주었다.

화가·배우·에세이 작가 정은혜

“나는 꿈을 다 이뤘어요”

**개인전, 에세이 출간,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연기까지 선보이며 왕성하게 활동 중인 정은혜 작가.
발달장애인인 그는 밝은 미소와 따뜻한 포옹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허문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는 재능도 있고 멋진 사람”이라고 말한다.** 글 이선희 사진 서범세

작업실 내부에는 그가 그린 캐리커처가 곳곳에 놓여 있다.

정은혜 작가와 함께하는 2023 ‘대한민국 1교시’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장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23 대한민국 1교시 및 백일장’이 열린다. 대한민국 1교시는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장애 이해 교육 방송 영상물로, KBS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방송되고, 영상물을 다운받아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다. 올해는 정은혜 작가도 영상에 참여해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한편, 백일장은 해당 영상물을 시청한 후 소감문을 작성·응모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더 효과적인 장애 인식 개선의 계기를 마련한다.

방송 일시 4월 20일 KBS한국방송 1·3라디오 09:00~10:00

세상을 다시 이어준 그림

정은혜 작가가 지나온 길이 모두 따스했던 건 아니다. 대학 졸업 후 갈 곳이 없어진 그는 온종일 동굴 같은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사회 활동을 멈추니 시선 강박이 생기고, 조현병 증상까지 나타나며 모든 것이 퇴행했다. 보다 못한 어머니 장차현실 씨가 청소를 구실 삼아 화실로 불러냈다. 그곳에서 우연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은혜 씨는 세상으로 나오게 됐다. 2016년부터는 경기 화성의 복합 문화 공간 문호리 리버마켓에서 ‘니 얼굴 은혜씨’라는 간판을 내걸고 캐리커처를 그리기 시작했다.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 정 작가의 표현에 따르면 ‘개고생’을 했지만, 2,000여 명의 캐리커처를 그리며 작가로서 성장해나갔다.

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

그림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정은혜 작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복지관 청소하는 일을 어렵게 맡았지만, 그마저도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이었다. 지금은 경기도가 제공하는 중증 장애인 일자리에 예술 노동자로 채용돼 매일 출근하며 다른 동료들과 즐겁고 성실한 하루를 보낸다. 달라진 건 일자리만이 아니다.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자신의 명함을 내밀고, 집안에서 유일하게 경제활동하는 소녀 가장이라며 농담 섞인 말도 건넨다. 사람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고 웃는 모습도 ‘동굴’ 시절을 떠올릴 수 없을 만큼 밝다.

희망이 또 다른 가능성으로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는 훗날 아이가 자라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잡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길 바란다. 은혜 씨의 부모도 꼭 그런 마음이었다고. 하지만 그는 스스로 삶을 꾸려나갈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세계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꿈을 다 이뤘다”고 말하는 정 작가에게 그 꿈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림)작가”라는 답이 돌아왔다. 작가가 된 이후 세상에 이름을 알리고,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었으니 그의 말대로 꿈을 다 이룬 셈이다. 꿈을 이룬 그를 보며 다른 장애인들은 이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언젠가 더 많은 이가 정은혜 작가처럼 “나는 꿈을 다 이뤘어요”라고 말하는 날이 오길 바라본다.

“작은 나눔 씨앗으로 기부의 숲을 일구는 꿈을 꿉니다”

(유)유복ENG 신동식 대표는 아너 가입식에서 “나눔은 마주 보는 거울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후 거울 앞의 자화상처럼 그를 똑 닮은 가족들이 나눔의 길로 들어섰다. 신동식 아너에게 가족은 가장 든든한 나눔 동료이며, 때로는 뛰어난 스승이다. 글 강보라 사진 김기남

신동식 대표는 나눔을 ‘작은 씨앗’에 비유한다.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쌀의 근원이 볍씨 한 알이듯 작은 나눔이 커다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부할 때도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멀리 내다보고 밭을 탓하지 않는다. “좋은 농사꾼에게는 나쁜 땅이 없다”는 말처럼 나눔에는 누구보다 진심이며, 성실한 자세로 임한다.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씨앗처럼 우리 나눔이 이웃의 삶을 지탱하는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신동식 대표의 나눔 결실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나타났다.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그의 나눔 일상은 가족에게 스며들어 뿌리내리고 싹을 틔웠다. 패밀리 아너로 뭉친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꽃피우고 열매 맺으며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있다.

신상우·신채은 남매의 자랑스러운 기부 독립 선언

전북 91호 아너인 유복전기 신상우 대표는 약정 기부를 약속했다. 30대 초반의 젊은 아너인 그는 “아너 가입을 목표로 했기에 더 열심히 달릴 수 있었다”고 말한다.
“남을 위해 살 만큼 연륜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처럼 평범하고 어린 사람도 가능하듯,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기부의 문턱을 낮추는 본보기인 셈이죠.(웃음)” – 신상우 아너
아너 가입식에서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말한 신상우 대표는 부모인 신동식·정인숙 아너의 사랑을 기부의 출발점으로 꼽았다.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이 저를 키웠고,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개인적 불행으로 누구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놓일 수 있으니, 그때 부모님의 사랑처럼 그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 신상우 아너
신상우 대표의 나눔은 검소함에서 시작되었기에 더 큰 울림을 준다.
“식대는 회사에서 지원하니까 제하고, 한 달에 개인적인 필수 지출이 35만 원 정도 되더라고

패밀리 아너 3인이 강조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울 때 나눔의 기쁨이 찾아온다고 믿는다.

요. 그 외에는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하지 않으니 기부가 가능해지더군요." – 신상우 아너

수원에서 직장을 다니는 딸 신채은 씨도 취업 소식과 함께 "아빠, 나도 이제 직장인이라 기부할 수 있어요!"라고 말할 정도였다. 사회 초년생이지만 패밀리 아너의 일원답게 당당한 기부 독립을 선언한 것이다. 가족은 얼굴을 마주한 거울처럼 자리하며 서로에게 존경할 수 있는 나눔의 스승이 되어주고 있다.

1의 나눔에서 100의 결실을 맺은 몽골의 기적

정인숙 아너는 "나눔은 우리가 가장 쉽게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라고 말한다. 주는 기쁨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얘기하는 그녀는 신동식 대표의 가장 든든한 나눔 동반자이기도 하다. 1의 나눔에서 100의 결실을 맺은 아너 부부의 나눔 기적은 몽골에서 꽃을 피웠다.

"직장에 다닐 때부터 해외 어린이를 후원했는데, 우연히 연이 닿아 몽골의 후원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여럿인데, 아빠가 간암이고 엄마 혼자 고군분투하는 상황이더군요. 그런데 엄마가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무엇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재봉 기술이 있으니 재봉틀이 있으면 좋겠다고 답하더라고요."

후원 가정에 선물한 한 대의 재봉틀은 이듬해 다섯 대로 늘었고, 몇 년 뒤에는 40~50대의 재봉틀을 가동하는 중소기업 수준으로 급성장했다. 양털 가죽으로 만든 모자와 장갑, 신발 등이 인기를 끌며 자리를 잡은 것이다. 훗날 후원 가정이 몽골의 독지가가 되어 학교 건립 등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부부는 벅차오르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1에 불과한 작은 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10 혹은 100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되었죠. 우리의 기부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새로운 삶의 발판이 된다고 생각하면 '기부=기쁨'이라는 말이 피부로 와닿지 않을까요?" – 정인숙 아너

사업가 신동식 대표는 기부를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투자'라고도 말한다.

"1의 원금으로 100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확실한 투자입니다. 손해는 없고, 무한한 감사와 뿌듯함이 이자로 딸려오죠. 이런 기부의 마법을 더 많은 분이 경험하도록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웃음)"

계영배(戒盈杯)로 배운 삶의 지혜

조선의 거상(巨商) 임상옥은 계영배를 곁에 두고 자신의 과욕을 경계했다고 한다. 계영배는 '지나침을 경계하는 잔'으로 7할을 따르면 마실 수 있지만, 7할을 넘으면 모두 새어나가도록 만든 잔이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지나침을 경계하는 선조들의 교훈인 셈이다.

신동식 대표는 이런 계영배의 교훈을 삶의 지표로 삼고 있다.

"이전에는 잔을 가득 채우기 위해 버둥거리고 애쓰며 살았죠. 채우면 만족스러울 줄 알았는데, 가득 채워도 불만은 생기더군요. 가득 채우기 위해 기를 쓰기보다 70~80% 정도에서 만족할 줄 아는 삶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100%의 재화가 100%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달은 뒤로는 주변 이웃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며 나누는 삶에 집중하고 있다. 돈은 수단일 뿐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삶의 지혜를 그의 인생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패밀리 아너는 신동식 대표에게 커다란 훈장이기도 하다.

"가족 구성원이 나눔의 주체로 살게 되었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눔의 세계를 펼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벅찬 기분이니까요. 가지가 뻗어나가는 나무처럼 우리 가족의 나눔 정신이 며느리와 손주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봅니다."

전북의 힘, 지역에 뿌리내린 기부 문화

신동식 대표는 아너 가입 소식이 대외적으로 알려지자 스스로 기부 통로를 자처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는 기부를 권하기가 어려운데, 아너 가입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면서 '그런 게 있었어? 어떻게 하는 거야?'라고 먼저 물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설명하고 안내해드리고 있죠. 기부를 매개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니까 참 좋더군요."

지난해 전북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제3대 대표로 취임한 신동식 대표는 전북지회 아너를 위한 다양한 계획도 세우고 있다. 신임 대표로 그가 내세운 것은 아너 모임 활성화와 지역 기부 문화의 성숙이다.

"고향에 기부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자신이 뿌리내리며 생활하는 지역에 기부하는 것이 삶의 터전을 지키는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민이 행복하고, 지역사회가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야 사업이나 장사도 잘될 테니까요. 전북의 힘은 지역의 기부 문화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얻은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며 자연스럽게 선순환하는 아름다운 기부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라봅니다."

사랑의열매와 손을 맞잡은 신동식 대표는 새로운 꿈을 꾼다. 마치 밭을 일구는 농부의 마음과 같다.

"제가 경험한 사랑의열매는 나눔 측면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기관입니다. 이곳에서 힘 좋은 일꾼으로 꼽힌 아너들과 나눔의 씨앗을 뿌린다면 전북에도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웃음)"

신동식 대표의 소망대로 그가 뿌린 나눔 씨앗이 기부의 숲을 이루고, 전북 곳곳에 사랑의 열매로 가득 맺히기를 바라본다. ♣

전북 56호로 등재된 정인숙 아너의 가입식 모습. 이날부터 부부 아너로 불리며 패밀리 아너의 시작을 알렸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어려운 이들이 떠올랐어요”

구두 수선공 김주술 씨가 닦은 건 비단 구두만이 아닐지 모른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글 강은진 일러스트 조성흠

돼지 저금통과 나누는 수익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시장 인근 대인교차로에는 아주 유명한 구둣방이 하나 있는데, 그 명성이 광주를 넘어 전국적이다. 아마 광주에서 유명한 사람 순위를 매긴다면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고도 남을 것이다. 기부 천사로 명성이 자자한 구둣방 사장님, 구두 수선공 김주술 씨. 그는 지난 20여 년 가까이 구두를 닦거나 수선해서 번 수익금 일부를 돼지 저금통에 모아 광주 북구와 동구에 약 2,200만 원가량 기부해왔다.

“구두 한 켤레 닦는 데 5,000원인데… 그때그때 1,000원도 넣고, 2,000원도 넣고 그래요. 구두 닦아 한 번에 큰돈 기부하긴 힘들거든요. 어떤 손님은 거스름돈 받지 않고 1만 원도 주시고, 좋은 일 하라고 2,000원 더 얹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럼 또 그때그때 다 넣고 그래요.(웃음)”

신문이나 방송엔 수익금의 10%를 모아 기부한다고 알려졌는데, 직접 김주술 씨와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10%가 아니었다. 어떤 날은 20%, 또 어떨 땐 절반인 50%, 또 어떤 날은 수익의 100%를 돼지 저금통에 넣고 있었다. 버는 돈 전부를 돼지 저금통에 넣는 것 같다고 하자, 그저 웃고 마는 김주술 씨다.

시련도 꺾지 못한 나눔

‘구두 수선공의 나눔’이라는 수식어로 널리 알려진 김주술 씨의 선행 뒤에는 보다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유통업을 하면서 동네 통장 일도 병행할 만큼 왕성하게 활동했다. 통장 일을 하며 받는 소정의 수고비를 모두 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부할 만큼 이미 나눔은 그에게 익숙한 것

구두 수선공 김주술 씨의 빛나는 나눔 이야기

구두 수선공 김주술 씨와 부인 최영심 씨

이었다. 그러다 IMF 외환 위기 때 사업 실패로 큰 시련을 겪었다.

“구두 일도 그때 누가 추천해줘 시작했어요. 정말 힘든 시기였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어려운 순간에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이 헤아려지면서, 전부터 조금씩 해오던 기부를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더니, 좋은 생각이라며 흔쾌히 격려해줘 용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어려운 이들이 떠올라 다시 나눔을 실천했다는 김주술 씨의 얘기를 듣고 있자니 가슴 한편이 먹먹해왔다. 그의 이런 나눔은 2014년 청와대 오찬에 초청되고, 2021년 광주광역시 명예의전당1호 헌액 대상자로 선정되며 공로를 인정받기도 했다.

“시청에 갔는데… 우리 부부를 찍느라 막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하고 그러는데, 문득 아내를 보며 ‘이게 행복 아닐까’ 하고 물으니 아내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더라고요.”

김주술 씨는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지닌 것이 행복이었다고 말하며, 그 행복을 위해 앞으로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했다.

울산 사랑의열매 제12대 전영도 신임 회장

“나눔의 기적으로 행복 도시 울산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난 2월 28일 일진기계(주) 전영도 대표이사가 울산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전 회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인물로, 울산 나눔문화 확산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글 이선희 **사진** 울산 사랑의열매

-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울산광역시 새마을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었다. 2019년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 88호 회원으로 가입하며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맺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사회백신 나눔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Q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을 6년간 역임했기에 기업 모금 활동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A 상공회의소에서 일하며 형성한 기업과의 네트워크 및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앞으로 울산의 기업 사회 공헌 사업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 기부금 의존도가 높은 만큼 개인 기부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복지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Q 나눔 활동을 시작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2006년에 울산 남구 새마을회장을 맡았는데, 당시 많은 봉사자가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도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험한 나눔과 봉사를 원동력 삼아 울산 사랑의 열매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창조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A 과거 공해로 얼룩진 태화강은 울산시와 시민 및 기업 모두가 노력해 생명의 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태화강의 기적을 이뤄냈듯이 울산시와 시민 및 기업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행복 도시 울산이 되도록 나눔의 기적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충북 사랑의열매 제11대 이민성 신임 회장

“충북의 나눔 저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5년 전, 담배 살 돈을 모아 쌀 40여 가마를 결식아동에게 전달한 게 시작이었다. 기부하고 느낀 뿌듯함이 어찌나 좋던지 덕분에 금연도 단숨에 성공했다. 이후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물론, 다양한 기관에 후원과 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충북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이 된 무영종합건설(주) 이민성 대표이사의 이야기다. 글 이선희 **사진** 충북 사랑의열매

- 2013년 충북 아너 소사이어티 12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2014년에는 부인 김순자 대표이사, 2019년에는 아들 이규철 변호사가 뒤이어 아너 회원이 되면서 충북 패밀리 아너 1호에 이름을 올렸다. 충청북도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 공동대표, 충청북도 도민홍보대사 협의회장을 역임했으며, 나눔문화 확산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대통령 표창, 2018년 충북도민대상(선행 봉사 부문)을 수상했다.

Q 취임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충북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고, 기부자와 함께 깊은 감동과 보람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눔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작은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투명하고 공정한 성금 집행과 조직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북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100호 돌파를 통해 도민들에게 충북의 나눔 저력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Q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 중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나요?

A 나눔을 시작한 계기가 결식아동에게 쌀을 지원한 일이다 보니 아무래도 아이들,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의 허기짐은 부실한 기초공사와 같습니다. 충북 지역 아이들이 단단한 반석 위에서 튼튼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Q 나눔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저는 나눔 자체가 좋아서 할 뿐 거창한 의미는 없습니다. 나누고 나면 스스로가 가장 행복하고, 그 감정을 또 느끼고 싶어 자꾸 나눔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나눔도 중독인가 봅니다. 그래서 나눔은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

전남 지역 공기업 1호 나눔명문기업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나눔의 바다에서 지역의 행복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국내 수출입 물동량 1위의 위상을 자랑하는 여수광양항.
우리나라 수출입 관문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YGPA)가 따뜻한 상생 발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남 지역 공기업 1호 나눔명문기업으로, 여수항 개항
100주년을 기념하며 나눔의 새로운 100년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

글 강보라 **사진**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전남 사랑의열매

전남 3호이며 전남 지역
공기업 1호로 등재된 YGPA의
나눔명문기업 가입식 모습

YGPA는 2011년 여수 광양을 경쟁력 있는 해운 물류 중심 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 기관이다. 출범 이후 12년이 지난 YGPA는 해운 항만 물류 산업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며 스마트 융복합 항만으로 발전을 꾀하고 있다. 1923년 여수항 개항, 1986년 광양항 개항의 역사와 전통을 잇고, 글로벌 우수 항만들과 경쟁하며 대한민국 해운 항만 물류 산업 발전을 이어가는 것이 YGPA의 목표라 할 수 있다. 또 전남 동부권의 유일한 국가 공기업으로서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나눔의 바다를 열어 행복한 세상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 중이다. 사회 공헌 추진 방향으로 '나눔동행(業)', '희망동행(愛)', '국민동행(民)'을 제시하며 지역민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YGPA만의 나눔 역사를 만들고 있다.

나눔명문기업으로 지역의 미래를 여는 YGPA

YGPA는 지난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남 지역 공기업 1호로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했다. 이는 설립 초기부터 지속 가능한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의미 있는 나눔 행보다. 항만에서 창출되는 가치를 지역사회와 나누며 함께하는 YGPA의 대표적 나눔 키워드는 '자립'과 '지속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YGPA의 박성현 사장 역시 "수혜자 맞춤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취약 계층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사회복지시설, 기업, 지자체 등 다양한 유관 기관과 소통·협업하는 '컬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상생 협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눔명문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공유 가치 창출'을 천명한 것이다. 이는 기업의 수익으로 물고기를 나눠주는 일시적 접근이 아닌, 물고기 잡는 방법을 전파해 개인과 사회의 변화와 자립을 유도하고, 나아가 일자리를 만드는 한 단계 진화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의미한다.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풀며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기존 사회 공헌 활동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기업과 사회 공동체의 공동 번영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노선을 택한 YGPA의 사회 공헌 활동은 시도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닌다.

사람과 바다를 잇는 나눔동행

'여수·광양항 해양 플라스틱 자원 순환' 프로젝트는 선박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대표적 ESG 사업이다. 폐플라스틱이 해양 쓰레기의 80%를 차지하며 바다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받자 YGPA에서 이를 활용한 자원 순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먼저 지역 내 사회적 기업과 함께 플라스틱 페트병 재활용 원사로 만든 리사이클 안전조끼 총 640벌을 제작해 광양항 항운노조, 배후 단지 근로자 등 항만 운영 현장 일선의 근로자들에게 제공했다. 일반 플라스틱을 활용한 차선 규제 블록도 총 180개 제작해 항만 구역 내 보행로를 구분하는 데 쓰는 등 안전한 현장 구축에도 일조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를 겨냥해 리사이클링 의류를 제작하고, 폐어망으로 만든 가방을 출시하며 판매 대상의 폭을 넓히기도 했다. 이를 통해 지난 2년간 총 22톤의 해양 플라스틱 수거 성과를 올리며 국내 최초로 해양 플라스틱

수거 국제 인증을 취득하고, '2022년 경영혁신 국무총리상을 수상해 자원 순환 선도 기관으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 폐플라스틱 수거로 해양 환경보호는 물론, 청년 벤처기업 및 지역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도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품 판매 수익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꿈꿀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를 지닌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내일을 위한 국민동행

YGPA의 국민동행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광양소방서와 '취약 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업무 협약(MOU)'을 맺어 소년소녀가장, 홀몸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 계층 400여 가구에 1,500만원 상당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산림과 인접한 화재 취약 계층 4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물을 신속히 분사해 피해를 막는 스프링클러도 설치했다. 산림 인근 지역에서 일어난 화재가 대형 산불로 번지며 큰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YGPA는 화재 발생에 따른 재산·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안전대상에서 장관상을 받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여수·광양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빼놓을 수 없다. 대표적인 임직원 참여형 행사 'YGPA 전통시장 가는 날'은 임직원이 자매결연을 맺은 광양 5일시장과 여수 교동시장을 방문해 농산물을 구매하고, 이 농산물을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지역 농산물 소비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구입한 물품을 취약 계층에 기부하며 이웃의 건강 증진과 영양 결핍을 예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불러오는 긍정적인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CEO가 찾아가는 지역사회 공헌 행사'는 주민들과 호흡하며 지역 밀착형 사회 공헌을 펼치기 위한 활동으로 꼽힌다. 박성현 사장이 여수·광양 지역 읍·면·동을 방문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민 및 소외 계층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기업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살려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프로젝트를 수립하거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방식이다. 지역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CEO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이렇듯 발로 뛰며 노력하고 있다.

1

2

3

1, 2 안전조끼와 차선 규제 블록으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3 해양 플라스틱 리사이클 원사로 만든 가방 '깨끗하여수(水)' 제품 모습

4

5

6

4 'YGPA 전통시장 가는 날'에 참여한 박성현 사장과 임직원
5 취약 계층과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시설 무상 보급
6 사랑의열매와 함께하는 '꿈꾸라 희망스마일'은 저소득 아동·청소년에게 치과 치료 비용을 지원해 건강한 치아와 밝은 미소를 선사하는 의료 지원 사업이다.

취약 계층의 자립을 응원하는 희망동행

사랑의열매와 함께하는 '도심 IN 스마트 팜'은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대표적 사업으로 꼽을 수 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수경 재배가 가능한 15평 스마트 팜 농장 시설을 지원하고, 광양의 특산 작물인 새싹인삼과 새싹채소(엔다이브, 스위트 바질, 로메인 등)의 재배 기술을 전수한다. 해당 작물을 재배하며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 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시설 견학 및 수확 체험, 샐러드와 음료를 판매하는 카페 운영 등으로 수익을 창출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도심 IN 스마트 팜은 스마트 제어 기술로 날씨나 계절 변화에 상관없이 실내에서 365일 24시간 재배가 가능해 몸이 불편한 취약 계층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 도심 속에 자리 잡은 만큼 일반 시민에게도 농업의 혁신 모델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광양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민·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 협력 모델로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형 사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지역 내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진행하는 광양 지역 '행복나눔 사랑실천 독거 어르신 도시락 배달' 역시 소외 계층 지원과 시니어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거양득 효과를 보는 사업이다. 건강한 어르신을 고용해 도시락 제작을 맡기고 이들이 직접 조리한 밥과 국, 반찬을 도시락에 담아 주 5회 홀몸 어르신 70가구에 배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니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취약 노인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돌보며 지역사회의 안전망까지 구축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재난 불평등'이란 같은 파도가 쳤을 때 약한 사람이 먼저 쓰러지는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다. 실제로 재난의 위험은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따라 아래로 흐르며 가장 약한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린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사는 취약 계층이 홍수로 침수 피해를 입거나, 폭염으로 온열 질환에 시달리고, 코로나19의 장기 불황으로 일자리를 잃고 고립되는 경우가 그렇다. YGPA의 사회 공헌은 재난의 파도에서 방파제 역할을 자처하며 지역 이웃의 자립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존재한다. 재난의 파도에서 지역을 지키는 YGPA의 나눔동행(業), 국민동행(民), 희망동행(愛)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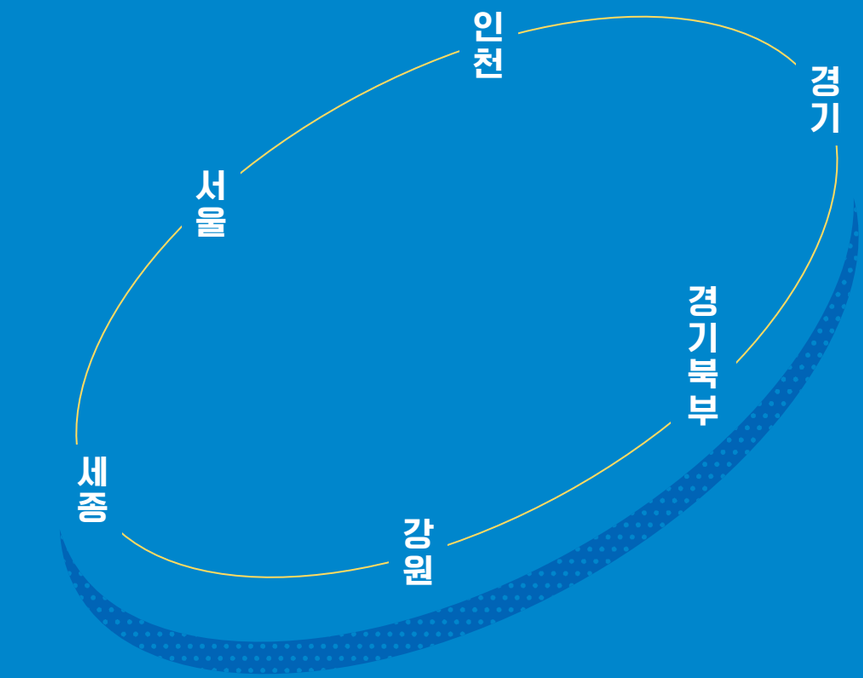
다른 그림 찾기에 도전하세요

누구나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아직도 우리 사회의 많은 이웃이 '평범한 일상'을 살지 못한다. 사랑의열매는 자유롭게 외출하고 사람을 만나며 아플 땐 치료받고 끼니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곳곳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다른 부분은 총 다섯 곳, 모두 찾은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다섯 곳을 모두 표시한 후 사진을 찍어 사랑의열매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름과 연락처도 꼭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마감 일자 매월 20일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



2023년 서울 사랑의열매 1호 패밀리 아너 소사이어티 탄생

우리가(家) 나눔명가(明家), (주)디에이치아이 박병조 창업주 가족

부모 뒤를 이어 삼남매까지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
이 봄을 더욱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소식이다. 글 강은진 **사진** 서울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에 참석한 박병조 창업주 대표와 삼남매. (왼쪽부터) 첫째 박보람 메누하(MENVHA) 대표, 아버지 박병조 ㈜디에이치아이 창업주, 둘째 박보연 ㈜디에이치아이 대표, 셋째 박세준 오든(oden) 대표

"저 역시 주변에 신세 진 분들 덕분에 목표를 잃지 않은 만큼, 저도 누군가에게 기운을 내라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 메누하(MENVHA) 박보람 대표

새로운 나눔명가 탄생

2023년 서울 사랑의열매 1호 패밀리 아너 소사이어티가 탄생했다. (주)디에이치아이 박병조 창업주 가족이다. 지난 2월 6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명예의 전당에서는 앞서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박병조 대표와 그의 아내 신영남 씨 뒤를 이어 부부의 삼남매 첫째 박보람, 둘째 박보연, 셋째 박세준 씨의 가입식이 있었다. 이들 삼남매는 한날 동시에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며 서울 사랑의열매 패밀리 아너 소사이어티에 이름을 올렸다. 무엇보다 박병조 대표 가족은 기업가 가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 및 광업용 기계와 장비 유통업체 (주)디에이치아이를 창업한 아버지 박병조 대표의 사업가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은 삼남매는 각자 자신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박보람 씨는 고품격 리빙 브랜드 '메누하(MENVHA)'를 창업해 하이엔드 디퓨저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둘째 박보연 씨는 아버지 뒤를 이어 (주)디에이치아이 대표직을 맡아 회사를 성장시키고 있다. 또 셋째 박세준 씨는 캠핑용품 중고 거래 플랫폼 '오든(ODEN)'을 창업해 캠핑족의

2023년 서울 사랑의열매 1호 패밀리 아너 소사이어티가 된 박병조 대표 가족

사랑의열매 명예의 전당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박보람, 박보연, 박세준 삼남매

새로운 소비 시장을 공략하며 차세대 기업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삼남매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비단 사업 재능만은 아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나눔 정신

박병조 대표의 삼남매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본질부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부분까지 몸소 실천으로 보여준 아버지 덕분에 나눔 역시 기꺼이 동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다. 부모의 따뜻한 가르침과 선한 영향력이 박보람, 박보연, 박세준 남매를 통해 환하게 비치는 듯했다. 가족을 대표해 첫째 박보람 대표는 "늘 물음표 투성이던 삶 속에서 저 역시 주변에 신세 진 분들이 계셨다"면서, "그분들 덕분에 목표를 잃지 않고 더욱 풍성하게 제 이야기를 채워갈 수 있었던 만큼, 저도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박병조 대표의 기업인 삼남매의 기부금은 삶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소년과 청년을 돕기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이재민 위해 마음 모은 인천시 공무원

“희망의 불씨를 전하고 싶어요!”

중구, 미추홀구, 남동구 등 인천 기초자치단체들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복구 성금 모금에 나서자 지역 내 기관 및 단체들까지 힘을 보탰다.

글 강은진 **사진** 인천사랑의열매

(왼쪽부터) 성금 전달식에 참석한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김의식 회장, 남동구청장 박종효, 인천 사랑의열매 조상범 회장

인천 사랑의열매 조상범 회장과 김정헌 중구청장(오른쪽)

특별 모금에 발 벗고 나서

2023년 2월 6일 새벽,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리히터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다.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5만 명을 넘기며 현대 역사상 최악의 인명 피해로 기록됐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역대급 재난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불확실한 미래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에 인천 사랑의열매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지원 특별 모금’을 지난 2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인천광역시 공무원은 너나없이 성금 모금에 자발적으로 앞장섰다.

군·구에서 시작, 지역 단체도 동참

시작은 중구청이었다. 중구청 임직원은 2월 13일과 14일 이틀간 긴급 모금을 실시해 733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후 남동구청이 1,894만 원의 성금을, 부평구청 임직원은 인천 사랑의열매가 특별 모금을 시작한 2월 8일부터 10일간 모금하여 1,125만 원의 성금을 모았다. 또 미추홀구는 600여 명이 넘는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1,207만 원을 모금했을 뿐 아니라, 서구청의 경우 임직원 일동 1,165만 원을 비롯해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서부지회, 인천통리장연합회 서구지회, 인천서구 자율방범대 등 다양한 단체들까지 합심해 총 2,865만 원을 인천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서구청의 모금액은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이 밖에도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공단,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등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

위로와 응원도 쏟아져

인천시민의 손발이 되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인천시 공무원들의 자발적 성금 모금은 튀르키예·시리아는 물론 우리 사회까지 훈훈함을 전한다. 인천 사랑의열매 조상범 회장은 “지진으로 삶의 기반이 무너진 튀르키예·시리아 이재민들을 위해 성금을 모아주신 인천광역시 공공 기관 임직원 및 자생 단체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하며, “성금을 조속히 전달해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왼쪽)과 인천 사랑의열매 박용훈 사무처장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왼쪽)과 인천 사랑의열매 조상범 회장

2023년 현대케피코 사회 공헌
군포시 지역복지 공모 사업 전달식

“지역사회와 지속 가능한 공생(共生)을 꿈꿉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지는 현대케피코의 사회 공헌 활동이 지역사회를 보다 따스하게 만들고 있다. 글 강은진 사진 경기사랑의열매

하은호 군포시장(가운데), 경기 사랑의열매 김효진 사무처장, 현대케피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공모 사업 전달식 기념사진

사회복지 기관 4개소에 사업비 전달

지난 3월 9일, 군포시청에서 ‘2023년 현대케피코 사회 공헌 군포시 지역복지 공모 사업’ 전달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경기 사랑의열매 김효진 사무처장, 현대케피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또한 공모를 통해 선정한 군포시 내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 4개소(●군포시지역자활센터 ●군포시장애인복지관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 ●한무리사랑나눔회)에 사업비 3,500만 원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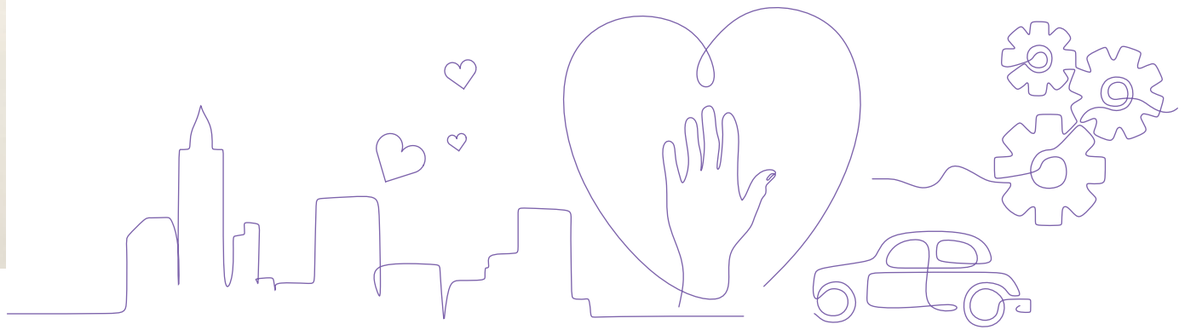
지속적 나눔, 큰 귀감

현대케피코는 매년 자체 공모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힘을 보태왔다. 이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20년부터 경기 사랑의열매와 협력해 군포시 내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을 대상으로 사회 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2016년에는 착한일터에 가입, 매월 현대케피코 임직원의 급여 일부를 기부하는 등 지역 사회복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왔다. 이 같은 현대케피코의 헌신은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전달식에 참석한 하은호 군포시장은 “군포시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해주는 현대케피코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 “앞으로도 군포시를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 – 현대케피코

지역 사회복지 발전도 함께!

2023 지역복지 공모 사업비를 기탁한 현대케피코 관계자는 “이번 사회 공헌 사업을 통해 군포시 지역 내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복지 이슈가 효과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에 선정된 시설과 기관 4개소에 사업비를 전달한 경기 사랑의열매 김효진 사무처장은 “좀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참해주신 현대케피코에 감사드린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경기 사랑의열매는 기업 사회 공헌의 전문 파트너로서 체계적 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에 위치한 현대케피코는 모빌리티 전자제어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수소차·전기차·전기 오토바이·내연기관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제어 기술을 연구 및 생산하고 있다.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한 (주)칠성

“화재 피해를 보듬어준 지역사회에 전하는 마음”

가구 마감 에지 및 압출 몰딩업계를 선도하는 (주)칠성이 이번에는 나눔문화 확산에 나섰다. 지난 2월 27일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에 1억 원 이상을 기부하며 나눔명문기업에 이름을 올린 것. 글 이선희 사진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왼쪽부터) 나눔명문기업 가입식에 함께한 파주시 김진기 부시장, (주)칠성 이흥수 대표,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권인욱 회장

국내외 기술력 인정받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한 (주)칠성은 1996년에 설립한 이래로 가구용 마감재를 개발, 생산, 판매하며 업계에서 독자적 입지를 구축했다. 특히 자체 기술과 연구를 통한 축적된 경험으로 국내 최초로 아크릴 에지를 개발하는 등 다수의 특허와 실용신안을 획득하며 탄탄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대기업과 협업하는 건 물론, 미국·호주·베트남 등 해외시장에도 제품을 출시하며 점차 영역을 확대하는 등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다시 일어설 힘을 준 지역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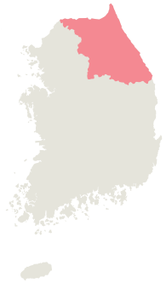
(주)칠성이 성공 가도만을 달려온 것은 아니다. 2016년 제조 공장에 화재가 발생해 직원은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긴급 대피했다. 당시 대기가 건조하고 연기가 많이 발생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4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다. 하지만 이미 공장 2개소인 면적 1,125m²가 전소돼 검은 재만 남았다. 눈앞이 캄캄하던 상황에서 지역사회가 복구 과정에 동참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다.

나눔으로 전하는 감사 인사

화재 피해를 복구한 이후 (주)칠성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 지역사회 곳곳에 나눔을 전했다.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친 (주)칠성은 지난 2월 27일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하며 또 다른 나눔 궤적을 남겼다. 가입식에는 파주시 김진기 부시장을 비롯해 (주)칠성 이흥수 대표,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권인욱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파주 4호 나눔명문기업의 탄생을 축하했다. 이로써 경기북부 사랑의열매를 통해 전달한 (주)칠성의 누적 기부금은 1억 5,650만 원에 달한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한 지역사회에 전하는 (주)칠성의 따뜻한 감사 인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예상한다.

“지자체와 경찰·소방 인력, 의료 기관들의 적극적 지원이 화재 진압과 피해 복구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과 지속적으로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주)칠성 이흥수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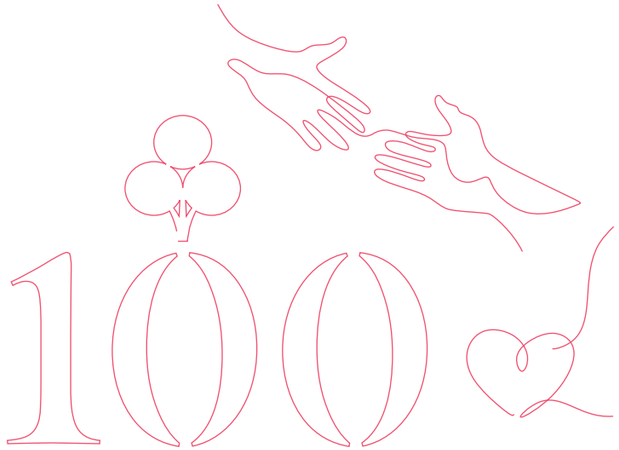


강원 100호 신정예 아너 회원

“남편의 나눔 활동을 보며 큰 결심을 했습니다”

강원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100호 회원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신정예 씨로, 앞서 아너 회원에 가입한 강릉상원전기 이상욱 대표의 아내다.
이제는 부부 아너이자 나눔 활동의 동반자가 된 두 사람 이야기.

글 이선희 **사진** 강원 사랑의열매



12년 만에 탄생한 강원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100호의 주인공 신정예 씨(오른쪽)

강원 100호 아너 가입식에 함께한 강릉상원전기 이상욱 대표와 신정예 아너(가운데)

12년 만에 100호 달성

지난 2월 2일 강릉시청 시민사랑방에서 신정예 아너의 가입식이 진행됐다. 강원 100호 아너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김홍규 강릉시장,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 신정예 아너의 남편인 이상욱 대표를 비롯해 강릉 지역 다수의 아너 회원이 함께했다. 가입식에서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은 “강원도에서 첫 아너 소사이어티가 탄생한 지 12년이 지난 오늘, 드디어 100호 회원을 맞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100호를 시작으로 더욱 많은 분이 나눔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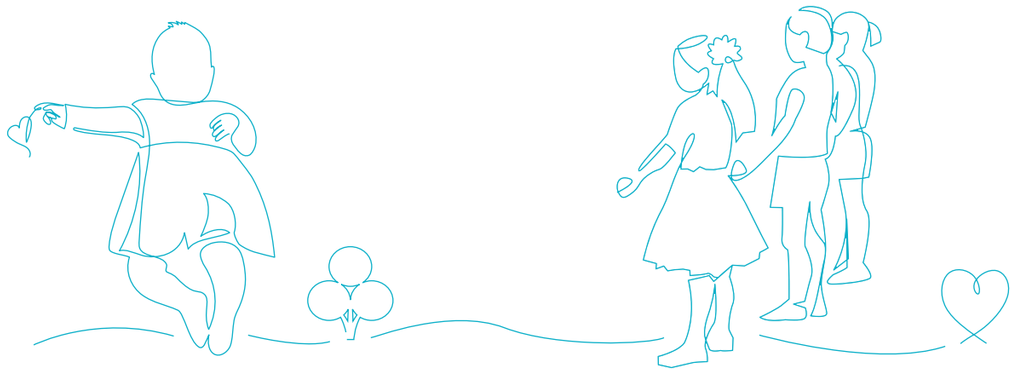
신정예 아너는 “주부로서 1억 원을 약정하고 기부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동안 남편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기부하는 모습을 보며 큰 결심을 했다”며 가입 이유를 밝혔다. 남편 강릉상원전기 이상욱 대표는 2013년 강원 6호 아너로 가입해 현재 강릉 권역(강릉·동해·속초·삼척·고성) 아너 회원 대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내 장애인 복지관을 정기 후원했으며, 2013년부터 사랑의열매 착한가게에 가입해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이웃을 돕고 있다. 신정예 아너 역시 이런 이 대표를 묵묵히 지원해오며 점차 기부에 뜻을 품게 되었다. 이제는 부부 아너로서 나눔을 함께 이어가게 된 이상욱 대표와 신정예 아너. 앞으로 두 배 더 따뜻해진 나눔의 힘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와 고물가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작은 나눔 하나하나가 모여 이웃들에게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 강원 사랑의열매 신정예 아너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어린이 나눔리더

어린 시절 체득한 나눔은 바른 인성을 지니게 하는 것은 물론, 아이의 일생을 따뜻하게 만든다. 자녀에게 나눔리더를 선물한 부모의 바람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글 이선희 사진 세종사랑의열매



첫돌 나눔 인증패 받은 남세하 양 (세종 나눔리더 79호)

2022년 3월 10일 아버지 남승현 · 어머니 유인선 씨가 첫돌을 맞은 남세하 양의 이름으로 100만 원을 기부했다. 남승현 · 유인선 씨는 아이의 첫돌을 맞아 뜻깊은 선물을 하고 싶어 고민하던 중 우연히 나눔리더를 알게 돼 가입을 결정했다. 남세하 양의 성금 100만 원은 아픈 아이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했다.

매달 소중한 나눔을 배운 홍태평 군 (세종 나눔리더 48호)

2021년 3월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홍태평 군은 나눔리더 인증패를 받았다. 아버지 홍성욱 씨가 아들 이름으로 매월 10만 원씩 1년간 생활이 어려운 70대 어르신을 후원하며 나눔리더 가입 조건을 충족한 것. 이로써 홍태평 군은 소중한 진심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세종 나눔리더 48호로 가입했다.

돌잔치 대신 첫 나눔 김범찬 군 (세종 나눔리더 126호)

지난 3월 23일 세종 사랑의열매 사무실에서 김범찬 군의 세종 나눔리더 가입식이 열렸다. 김범찬 군의 첫 생일을 맞아 부모는 돌잔치 대신 300만 원을 기탁하며 관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후원하고자 한 것. 아버지 김동민 씨는 "범찬이가 건강하고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눔리더에 가입했다"며 둘째가 태어나도 똑같이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세종 사랑의열매 직원은 가입식 당일 범찬 군을 위해 돌상을 차려 축하를 전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특별한 여섯 살 생일 선물 김나율 양 (세종 나눔리더 109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의 자녀인 김나율 양이 2022년 9월 23일 세종 109호 나눔리더가 됐다. 김 의원은 나율 양 생일 때마다 자녀 이름으로 사회복지기관에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여섯 살 생일에는 나눔리더라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아이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과 나눔을 배우며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다"며 나눔리더 가입 이유를 밝혔다.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 따뜻해집니다

전국 3110호(서울 378호)

이화숙 (주)뱅코해운항공 대표
"나눔은 나의 행복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함께 즐거운 삶을 위하여!"

전국 3112호(중앙 371호)

김동영(NCT 도영) SM엔터테인먼트 가수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저의 작은 손길이 다소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3113호(중앙 372호)

이동혁(NCT 해찬) SM엔터테인먼트 가수
"모두가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저의 작은 정성이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전국 3123호(대구 215호)

이용직 한영한마음아동병원 원장
"가진 것이 많아야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많은 분이 나눔에 참여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전국 3015호(충북 73호)

윤대중 주식회사 숲 대표
"나눌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전국 3088호(경북 152호)

김인근 성심출판사 대표
"이 세상에 혼자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항상 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에 보답해야 한다는 아버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전국 3124호(충북 74호)

권영선 서울고속(주) 대표이사
"지역복지 발전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전국 3126호(경기 308호)

김수지 KLPGA 동부건설 골프단 WP스포테인먼트 골프 선수
"사랑의열매를 통해 많은 분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3093호(경북 153호)

권태인 영한산업(주) 前 회장
"수구초심(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은 마음)이라는 말처럼,
나이가 들수록 고향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더욱 간절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꾸준히 이웃을 살피겠습니다."

전국 3097호(전남 139호)

김양안 연세피부과 원장
"받은 만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전국 3130호(광주 155호)

박세환 (주)대영건설 대표이사
"어려운 사정으로 의료적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전국 3131호(광주 156호)

한시인 세라코(주) 대표이사
"저의 작은 실천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큰 기쁨과
행복한 기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정해린 삼성물산 사장

중앙회

강원도,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구호 성금 전달

강원도(도지사 김진태)가 지난 2월 6일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1억 3,000여만 원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2월 24일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진행한 전달식에는 김진태 도지사와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번 성금은 지진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인도적 차원의 긴급 구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강원도의 구호금에 강원도청 직원이 자발적으로 적립한 '강원행복나눔기금' 1,000만 원을 더해 조성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는 규모 7.8의 대지진과 계속되는 여진으로 5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김진태 도지사는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되어 이재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번 구호금이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제니엘그룹, 나눔명문기업 가입으로 이웃사랑 실천

종합 HR 고용 서비스 기업 제니엘그룹(회장 박인주)이 1억 원을 기부하며 사랑의열매 326호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했다. 올해로 창립 27주년을 맞이한 제니엘그룹은 당시 불모지였던 아웃소싱 사업을 기반으로 출발해 유통·판매·물류 등 다양한 사업 분야로 영역을 확장해 현재의 종합 아웃소싱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2003년 지역 연계 모금에 참여해 처음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맺은 이후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참여, 노인 보행 보조기 현물 기부 등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왔다. 또 푸른꿈일자리재단과 제니엘플러스를 통해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장애인 등을 위한 취업 역량 강화·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인주 회장은 "제니엘을 처음 설립했을 때부터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다방면으로 실천해왔다"며 "나눔명문기업 가입을 계기로 앞으로도 봉사와 나눔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

레드캡투어, 튀르키예·시리아 어린이 위한 성금 기탁

기업출장·렌터카·MICE 사업을 펼치는 레드캡투어(대표이사 인유성)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성금 1억 원을 기탁하며 서울 54호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했다. 인유성 대표이사는 "지진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린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팬클럽 영웅시대 서울2구역, 지진 피해 지원에 힘 보태

가수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시대 서울2구역(강남, 서초, 송파, 강동, 동작) 회원들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성금 1,201만 원을 전달했다. 나눔리더스클럽에 가입한 바 있는 영웅시대 서울2구역은 지난 2021년에도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3,700만 원, 한부모 가정 지원에 1,105만 원을 기부하는 등 나눔에 꾸준히 앞장서고 있다.

부산

이주 아동 성장 지원 사업에 8,000만 원 배분

부산 사랑의열매가 2023년 기획 사업인 '이주 아동들의 위기 환경 극복을 위한 성장 지원' 사업에 지원금 8,000만 원을 배분했다. 이번 사업은 부모의 생계 활동으로 방치되기 쉬운 6세 이하 아동에게 보육 기회를 제공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했다. 지원금은 (사)이주민과 함께에 전달했다.

BNK금융그룹, 고객·임직원과 함께 지진 피해 복구 지원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부산 사랑의열매에 성금 3억 원을 전달했다.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5일까지 24일간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모바일 뱅킹을 통해 지진 피해 돕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고객과 임직원이 함께 모은 기부금에 BNK금융그룹이 동일한 금액을 더해 성금을 마련했다.

대구

대구신화수산(주), 청소년 희망 장학금 3,000만 원 전달

대구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취급하는 대구신화수산(주)(대표 고중근)가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3,000만 원을 대구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대구신화수산(주)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5억 4,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고등어, 멸치, 김 등 수산물을 기탁했다. 고중근 대표는 "지역 청소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경안전컨설팅(주), 임직원 한마음으로 착한일터 가입

건설 재해 예방 전문 지도 기관 대경안전컨설팅(주)(대표이사 전정숭)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나눔에 동참하며 대구 사랑의열매 착한일터에 이름을 올렸다. 부모와 함께 아너 회원으로 가입한 바 있는 전정숭 대표는 "직원들이 만장일치로 가입을 결정해줘 고맙고, 회사의 발전은 지역민 덕분이라는 마음으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인화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지원 성금 기탁

인천 지역 공공 기관 및 주요 단체장과 기업체 대표 등 저명 인사들의 모임인 인화회(회장 심재선)가 지진 피해 지원 성금 2,0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고자 회원들이 십시일반 기부금을 모아 마련했다. 심재선 회장은 "지진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어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 현대시장 화재 피해 복구 지원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본부장 황재필)가 지난 3월 4일 발생한 인천 동구 현대시장 화재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1억 원을 인천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황재필 본부장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현대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을 위해 성금을 기탁했다"며 "상인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면 더할 나위 없겠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광주

국제라이온스협회 한국연합회, 지진 피해 이재민 지원

국제라이온스협회 한국연합회(이사장 구제길)가 지진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 이재민을 위한 성금 3,50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긴급 구호품·식료품·쉼터 제공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구제길 이사장은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큰 재난이 닥쳐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이재민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시인 대표이사, 아너 회원으로 가입

세라코(주) 한시인 대표이사가 광주 156호 아너 회원으로 가입했다. 광주 42호 아너 다스코(주) 한상원 회장과 광주 43호 아너 (주)홍인 박일선 대표의 자녀인 한시인 대표이사의 가입으로 광주에 여덟 번째, 올해 첫 번째 패밀리 아너가 탄생했다. 한 대표는 "저의 작은 나눔이 이웃에게 큰 기쁨과 행복한 기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가입 소감을 전했다.

대전

계룡건설 임직원, 발달장애 청소년 위해 마음 모아

계룡건설(사장 이승찬) 임직원이 이웃사랑 성금 1,200여만 원을 대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성금은 엘림특수교육원(원장 유인예)에 전달해 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목공 동아리 활동 사업에 지원했다. 착한일터에 가입한 계룡건설은 매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는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대전 사랑의열매 회장 이·취임식 개최

지난 3월 20일 대전 사랑의열매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제11대 정태희 회장은 취임 기간 동안 희망나눔캠페인 목표 성금을 모두 초과 달성했고, 2022년부터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을 겸임하며 기업의 나눔 참여를 독려했다. 새로 취임한 제12대 유재욱 회장은 취임사에서 "시민에게 친근한 사랑의열매가 되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울산

조계종울산사암연합회, 백미 700포 기탁

조계종울산사암연합회(회장 산옹 스님)가 지난 2월 5일 울산 태화국가정원 잔디정원에서 정월 대보름맞이 방생 법회와 달집 태우기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서동욱 남구청장을 비롯해 3,0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조계종울산사암연합회는 주민의 평안을 기원하고, 울산 남구청에 10kg 백미 500포, 울산시청에 200포를 전달했다.

우정동 나눔 천사, 합동 가입식 진행

지난 2월 21일 울산 중구 우정동 착한기업·착한가게·천사계좌 합동 가입식이 열렸다. 가대산업과 브릿지포비즈는 착한기업으로, 티아커피·티아건축사무소·우정동 파크랜드·우정동생막걸리·아리따움 우정점·가대산업·종갓집돼지국밥·울산그린레져 8개소는 착한가게로 가입했다. 우정동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등 35명은 천사계좌에 가입했다.

경기

롯데케미칼, 의왕시에 대학 신입생 장학금 후원

롯데케미칼(대표 이영준)이 의왕시 관내 대학 신입생을 위한 장학금 3,000만 원을 의왕시에 전달했다. 장학금은 롯데케미칼 임직원이 모은 성금에 회사가 동일 금액을 더해 마련했으며, 대학 신입생 15명에게 200만 원씩 지원했다. 롯데케미칼 문정식 상무는 "임직원의 나눔이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시,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추진 업무 협약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경기 사랑의열매와 '지방세 환급금 기부 제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환급금 지급 안내를 통보한 후에도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찾아가지 않은 3만 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을 취약 계층에 기부하는 제도다. 자발적으로 지방세 환급금 기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간편한 절차로 참여할 수 있다. 기부금은 안성 지역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

경기북부

제3기 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복지대학 개강

지난 3월 3일 양주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23년 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3기 마을복지대학이 개강했다. 이번 마을복지대학은 양주시와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3월 한 달 동안 5회기에 걸쳐 진행했다. 마을복지대학 사업은 마을 리더를 마을의 복지 리더로 양성하기 위해 복지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청평양수발전소, 난방비 지원

한국수력원자력(주)청평양수발전소가 사회복지시설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에 2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가평군에 위치한 원방의집(원장 이성환)에 전달됐다. 이성환 원장은 "지자체의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소중한 성금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강원

대한한돈협회 강원도협의회, 강원 지역 한돈 햄 나눔행사

대한한돈협회 강원도협의회(회장 배상건)가 '백종원의 백햄' 7,300개를 기탁했다. 대한한돈협회 강원도협의회는 강원도 내 11개 시군의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특화 한돈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배상건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음을 모아 마련한 성품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춘천시 나눔봉사단, 연탄 배달 봉사 활동 실시

춘천시 나눔봉사단(단장 한금동)이 춘천시 우두동 일대의 저소득층 18가구에 연탄 3,500장을 배달했다. 춘천시 나눔봉사단은 2015년부터 매년 연탄 배달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금동 단장은 "한겨울이 지나면 연탄 기부가 줄어든다"며 "봄이 와도 에너지 빈곤층은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에 연탄 배달 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충북

충북아너소사이어티클럽, 신년인사회개최

2023년을 맞아 충북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충북 사랑의열매 노영수 前 회장, 충북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이태희 회장 및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클럽 경과 보고와 인사 말씀을 나누고, 회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마련한 2,000만 원 상당의 김치를 복지 기관에 전달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못난이김치 후원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이 기탁한 1,000만 원 상당의 '못난이 김치'를 충북 도내 11개 시군에 전달했다. 못난이 김치는 제때 수확하지 못했거나 겉모양이 못생긴 배추를 활용해 도내 김치 제조업체와 함께 만든 충북 대표 김치다. 허은영 이사장은 "나눔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충남

사회복지 서비스 차량 지원 사업 전달식 진행

충남 사랑의열매가 충청남도 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차량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지원 대상으로 총 30개소의 기관 및 시설을 선정하고 2022년 12월 10대를 전달한 데 이어 지난 3월 27일 20대를 전달했다. 차량은 아이들의 귀가 지원, 노인 세대 병·의원 방문 지원, 폭력 피해 여성 방문 상담 등에 사용한다.

한국중부발전(주)신보령발전본부, 희망의 보금자리 준공

지난 3월 8일 '희망의 보금자리' 23호점을 준공했다. 희망의 보금자리는 한국중부발전(주) 신보령발전본부의 대표적인 사회 공헌 사업이다.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을 위해 주택 리모델링 및 신축 등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이 사업을 위한 재원은 임직원의 성금으로 마련해 더욱 의미가 크다.

전북

전북은행, 'JB 다같이 으쓱(ESG) 적금' 기부금 전달

전북은행이 'JB 다같이 으쓱(ESG) 적금'으로 모은 성금 2,000만 원을 기탁했다. 해당 적금은 고객이 적금에 가입할 때마다 전북은행이 1계좌당 2,000원씩 적립하는 상품으로, 2022년 8월에 출시해 성금을 조성했다. 전북은행 김태현 부행장은 "앞으로도 ESG 가치 실현을 위한 상품 개발 및 나눔 실천으로 더욱 경쟁력 있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변산면 착한가게 단체 가입, 전북 4200호 돌파

부안군 변산면에 위치한 가게 11개소가 착한가게로 단체 가입하면서 전북 착한가게가 4200호를 돌파했다. 가입 업체는 전주그린횟집(조미자), 교촌치킨 격포변산점(한지영), 변산반점(추덕임), 청해루(이인숙), 채석강맛집(이은주), 담소(김지온), 대성집(김혜자), 옛날통닭(김연숙), 갯마을맛집(한상섭), 동신떡방앗간(유선옥), 예가갈비(박경모) 등이다.

전남

해남군에 취약 가구 위한 이동 세탁 차량 지원

전남 사랑의열매가 해남군에 이동 세탁 차량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차량은 총 1억 6,660만 원 상당으로, 전남 사랑의열매 9,960만 원, 개인 및 단체 기부금 6,700만 원을 모아 제작했다. 2.5톤 화물차에 세탁기 4대를 탑재한 이동 세탁 차량은 해남군 관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원 빨간펜 목포센터, 착한일터 가입하며 나눔 동참

교원 빨간펜 목포센터(센터장 박종임)가 전남 사랑의열매 착한일터로 가입하며 이웃을 위한 나눔에 동참했다. 교원 빨간펜 목포센터 직원 19명이 정기 기부를 약정하고 나눔에 참여했으며, 기부금은 전남 지역의 복지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박종임 센터장은 "직원들과 함께해 더욱 뜻깊다"며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싶다"고 전했다.

경북

SM그룹 삼라희망재단, 독립 유공자 후손 지원 성금 전달

SM그룹(회장 우오현)의 공익 재단 삼라희망재단이 독립 유공자 후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원금 2억 원을 경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경상북도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독립 유공자 후손 35가구의 노후 주택을 보수했으며, 올해는 10가구를 보수한다. 우오현 회장은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독립 유공자의 후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 진행

경북 사랑의열매가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복지 현안 공유, 연합 모금 활성화 등 지역 아동들에게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무지개지역아동센터 김용남 센터장은 "아동의 미래를 위해 애쓰는 사랑의열매에 감사드리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특례시 공직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지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대규모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해 성금 2,980여만 원을 경남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성금은 지난 2월 14일부터 창원특례시 공직자들이 온정의 손길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3,800여 명이 모금에 동참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하종목 제1부시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이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로템 사내 협력사 사랑봉사단, 아동 양육 시설 후원

현대로템 사내 협력사 사랑봉사단(단장 정경수)이 아동 양육 시설을 위한 성금 200만 원을 경남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사랑봉사단은 진우정공, (주)동영이엔지, (주)선우도장, (주)동우엠티, (주)국제산업, (주)부강시스, 천주산업(주), (주)성진전기기술, (주)대경기업이엔지, (주)거원기업, (주)우영기업 총 11개 업체가 소속되어 있다.

제주

제4회 제주삼다수 Happy+ 공모 사업, 사업 고도화 워크숍 성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주 사랑의열매·제주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제4회 제주삼다수 Happy+ 공모 사업' 사업 고도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지난 3월 16~17일 선정 기관 사업 담당자들과 제주도 내외 비영리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멘토단이 교류하며 사업의 강점을 도출하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로 보다 혁신적 사업으로 거듭나는 시간이었다.

광동제약, 11년째 이어진 사랑의 음료 나눔 행사

광동제약이 사랑의 음료 나눔 행사를 통해 1억 원 상당의 음료 제품을 제주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음료는 제주도 내 저소득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했다. 광동제약은 제주삼다수 위탁을 인연으로, 매년 제주 지역을 위해 '제주 희망&나눔 집수리 봉사', '제주 유기동물 환경 개선 활동'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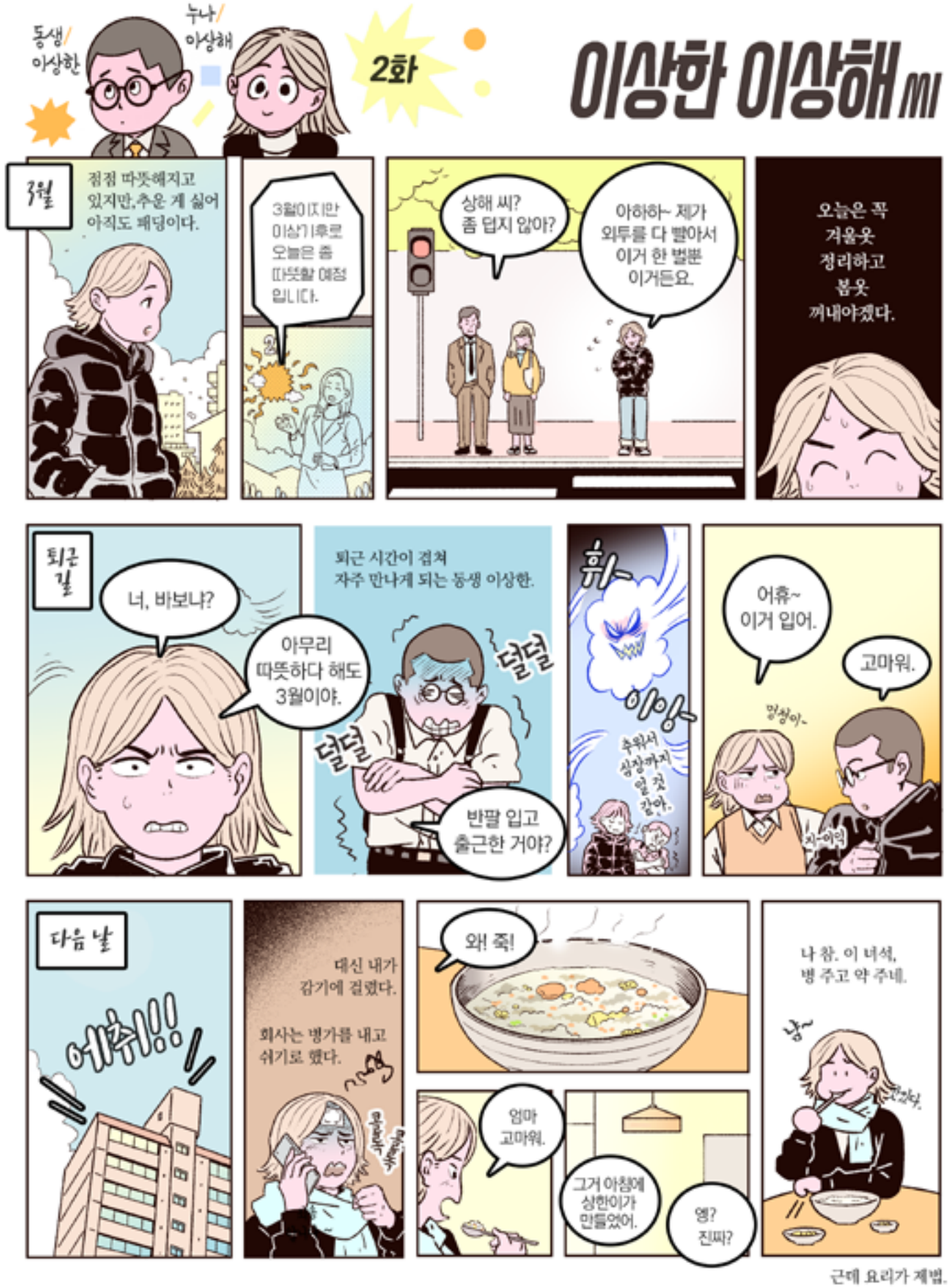
세종

대한불교조계종 영평사, 지진 피해 이재민에게 사랑 전달

대한불교조계종 영평사(주지스님 환성)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지원 성금 1,000만 원을 세종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영평사는 매년 세종시 저소득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장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매월 정기 기부를 하고 있다. 또한 환성 스님 이름으로 아너 회원에 가입하는 등 세종시 이웃을 위해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조치원 세세이맘카페, 나눔리더스클럽 가입식

지난 2월 27일 조치원 세세이맘카페의 나눔리더스클럽 가입식을 진행했다. 세세이맘카페는 지난 1월 희망2023나눔 캠페인에 1,0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세종 사랑의열매 나눔리더스클럽 13호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가입식에서 회원들은 튀르키예·시리아 특별 모금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하며 다시 한번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섰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는 투명합니다

사랑의열매는 전국 약 3만 개 협력 기관들을 지원하며,
자체 모니터링, 정부감사, 국정감사를 받는 대한민국 대표 나눔플랫폼입니다.

기부금의 94% 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2022년 지원금액

7,334억

2022년 모금금액

7,925억

연말에 모금액이 집중됨에 따라
일부 모금액은 다음해에 지원됩니다

홈페이지 가기

지원대상	아동 / 청소년 1,578억	노인 954억	장애인 469억	여성 / 다문화 343억	위기가정 1,852억	지역사회 2,035억	해외 / 북한 103억
사업분야	기초생계 3,857억	교육 / 자립 915억	주거 / 환경 735억	보건 / 의료 528억	심리 / 정서 285억	사회적 돌봄 강화 659억	소통 / 참여 확대 210억	문화격차 해소 145억

[해당 지원내역은 2022년 사랑의열매 나눔기록입니다. 지난해 7,334억 원으로 전국 약 3만 개의 협력 기관과 함께 40만 명의 이웃을 지원했습니다.]